TDB 경기동향조사(전국)– 2026 년 9 월 조사 –

2026 년 10 월 5 일
주식회사테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trends

체감경기는 보합권에서 추이

～ 약한 수요와 코스트 부담이 회복을 억제 ～

(조사대상 2 만 2,095 사, 유효회답 1 만 235 사, 회답율 46.3%, 조사개시 2002 년 5 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1. 2026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부터 보합인 44.6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기계 관련 수요 및 여행 수요가 뒷받침하였으나, 사입단가의 높은 가격 추이나 궂은 날씨 등으로 악재도 많아, 상향 경향은 잠시 정체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높은 코스트와 금리상승이 성장세를 억제하는 한편 내수 회복이 지탱하여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10개 업계 중『건설』『제조』『금융』3개 업계가 개선,『농・임・수산』『서비스』등 6개 업계가 악화되었다.『도매』는 보합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기업」은 개선되었으나,「대기업」「중소기업」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쿠리쿠』등 4개 지역이 개선,『토카이』등 5개 지역에서 악화되어 지역에 따른 명암이 갈렸다.
3. [이번달의 토픽스] 매출DI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50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관련 업종이 견조한 한편, 소매업에서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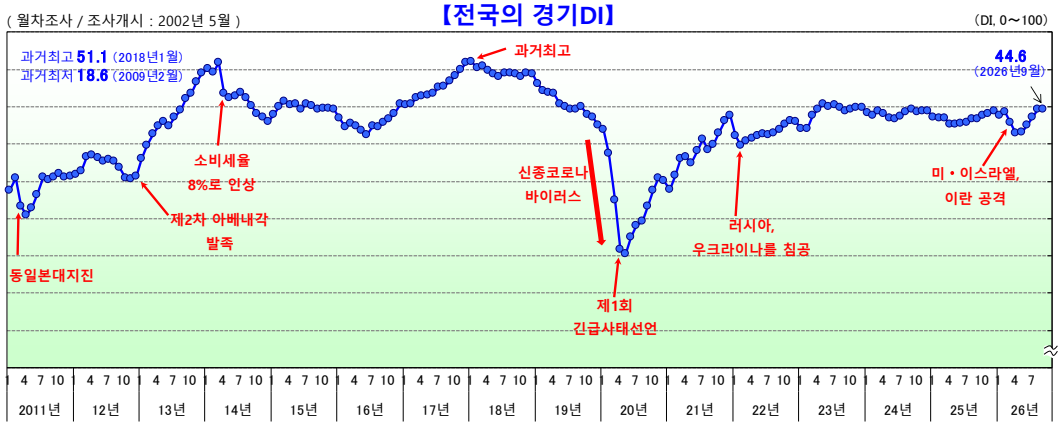
< 2026년 9월의 동향 : 보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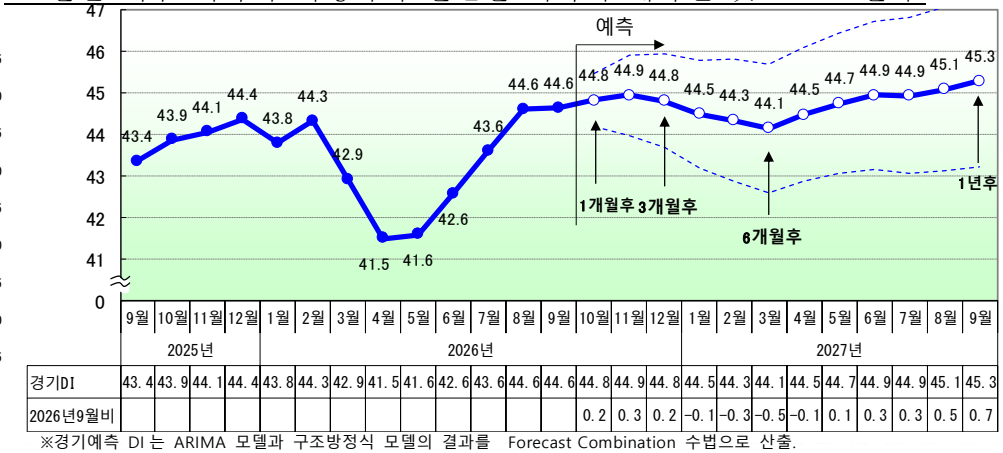
2026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부터 보합인 44.6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기계 관련 수요 및 여행 수요가 뒷받침하였으나, 사입단가의 높은 가격 추이나 궂은 날씨 등으로 악재도 많아, 상향 경향은 잠시 정체하였다.

9월은 호조인 AI・반도체 관련을 축으로 하는 기계수요 외에, 긴 연휴로 인한 여행・레저 수요, 견조한 건설수요가 호재였다. 한편 매출 및 생산・출하량은 강하지 않고, 사입단가의 고가추이 및 인력부족,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부담에 대한 경계, 궂은 날씨 등이 악재로 작용하였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히 회복 >

향후는 정부의 성장투자 및 국토강인화, 기업의 생력화(省力化)・갱신투자가 내수를 지탱할 것이다. 음식료품의 소비세율 인하를 포함한 물가고 대책이나 임금인상 정착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된다면, 개인소비의 회복도 기대된다. 수출 회복도 지탱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인력부족 및 인건비상승은 기업수익을 압박하고, 장기금리 상승은 설비・주택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동정세나 해외경기, 통상정책의 불투명함도 남아있다. 향후의 경기는 높은 코스트와 금리상승이 성장세를 억제하는 한편 내수 회복이 지탱하여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기DI	43.4	43.9	44.1	44.4	43.8	44.3	42.9	41.5	41.6	42.6	43.6	44.6	44.6	44.8	44.9	44.8	44.5	44.3	44.1	44.5	44.7	44.9	44.9	45.1	45.3
2026년9월비														0.2	0.3	0.2	-0.1	-0.3	-0.5	-0.1	0.1	0.3	0.3	0.5	0.7

※경기예측 DI 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TEIKOKUDATABANK, LTD.2026